



2022년 9급 시험대비 국어 9품사 완전정복(6)

| 천지현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Thema 수식언 / 독립언

이 테마는? 수식언에서는 관형사가 최근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관형사와 용언의 활용형 구별, 수 관형사와 수사 구별이 주된 내용이다. 부사와 부사어의 구별 문제도 주요 출제 포인트이다. 관형사와 부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용언과 관형사를 구별하는 방법도 숙지해 두어야 한다, 감탄사는 거의 출제되지 않으므로 가볍게 알아 두면 된다.

[01] 수식언(修飾言)

수식언은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거나 한정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관형사와 부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 관형사(冠形詞)

: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품사로,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활용도 하지 않는다. 성상 관형사, 지시 관형사, 수 관형사 따위가 있다.

성상 관형사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관형사. '새, 흰, 순(純)' 등	순 살코기, 새 책, 옛 모습
지시 관형사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관형사	이 사람, 그 사람, 저 어린이, 다른
수 관형사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관형사	한 사람, 세 근, 셋째 구역

※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의 구별

구분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시제	표현 ×	표현 ○ 예 먹은(과거)/먹는(현재)/먹을(미래)
기능	수식 기능	수식 기능+서술 기능
품사	관형사(활용 ×)	용언(활용 ○)
예	흰 옷, 옛 친구, 여러 번	새로운 나라, 달리는 말, 타는 저녁놀

[더 알아보기]

관형사와 다른 품사의 구별

1. 관형사와 수사: 뒤에 명사가 오면 관형사이고, 뒤에 조사가 붙거나 자립하여 수를 나타낼 수 있으면 수사이다.

예 책 한 권을 샀다. / 여기서 내가 읽은 책이 한둘 눈에 띈다.
관형사 수사

2. 관형사와 대명사: 뒤에 명사가 오면 관형사이고, 뒤에 조사가 붙으면 대명사이다.

예 그 사람은 커피를 좋아한다. / 그가 드디어 돌아왔다.
관형사 대명사

3. 관형사와 용언: 모두 체언 수식이 가능하지만, 활용할 수 없으면 관형사이고 활용이 가능하면 용언이다.

예 모든 권세를 버리고 떠났다. /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
관형사 용언(형용사)

2. 부사(副詞)

: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 활용하지 않으며, 문장의 한 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 부사로 나뉜다.

성분 부사 문장의 한 성분을 꾸며 줌.	성상 부사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을 한정하여 꾸미는 부사	잘, 매우, 바로 등
	지시 부사	처소나 시간을 가리켜 한정하거나 앞의 이야기에 나온 사실을 가리키는 부사	이리, 그리, 내일, 오늘 등

	부정 부사	용언의 앞에 놓여 그 내용을 부정하는 부사	아니, 안, 못 등
문장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 줌.	양태 부사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 부사	과연, 설마, 제발, 정말, 결코 등
	접속 부사	앞의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의 체언이나 문장에 이어 주면서 뒤의 말을 꾸며 주는 부사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하지만, 그러므로, 즉, 곧, 및, 혹은, 또는 등

[02] 독립언

독립언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감탄사를 이르는 말이고, 감탄사는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품사이다.

예 아이고, 휴우, 자, 아서라, 어, 말이지

[기출체크]

01.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2018. 서울시 9급

- ① 그곳에서 갇은 고생을 다 겪었다.
- ②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 ③ 인천으로 갔다. 그리고 배를 탔다.
- ④ 아기가 방글방글 웃는다.

02.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관형사가 아닌 것은? 2016. 국회직 8급

- ① 부모에게 불효하는 고얀 녀석 같으니라고.
- ② 남편을 기다리며 이렇게 하고많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 ③ 긴긴 세월을 인내하며 노력해 왔다.
- ④ 그 사람은 서울에서도 한다하는 집안에서 자랐다.
- ⑤ 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정답]

01. [정답] ①

'갇은'은 명사 '고생'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오답분석]

- ② '바로'가 뒤에 이어지는 대명사(체언) '이것'을 수식한다. 보통은 관형사가 체언을 수식하지만, '바로'는 부사이면서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예외적인 단어이다.
- ③ 우리말의 접속어들은 대부분 부사이다. '그리고'도 접속 부사이다.
- ④ '방글방글'은 동사 '웃는다'를 수식하는 (상징) 부사이다.

02. [정답] ②

'하고많은'은 관형사가 아니라 '많고 많다'의 뜻을 지닌 형용사 '하고 많다'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은 활용형이다. 어미는 품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대로 형용사이다.

[오답분석]

- ① '고얀'은 '성미나 언행이 도리에 벗어나는'의 뜻을 지닌 관형사로, 뒤에 오는 명사 '녀석'을 꾸며 준다.
- ③ '긴긴'은 '길고 긴'의 뜻을 지닌 관형사로, 뒤에 오는 명사 '세월'을 꾸며 준다.
- ④ '한다하는'은 '수준이나 실력 따위가 상당하다고 자처하거나 그렇게 인정받는'의 뜻을 지닌 관형사로, 뒤에 오는 명사 '집안'을 꾸며 준다.
- ⑤ '다른'은 '딴'의 뜻을 지닌 관형사로, 뒤에 오는 명사 '일'을 꾸며 준다.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